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 흐린다더니

주필

아침부터 이런 말을 들으면 불쾌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일상화되면서 양치질을 게을리하는 사람이 늘었다고 한다. 마스크로 입을 가렸으니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이다. 처음 마스크를 쓰면 그동안 몰랐던 자기 입 냄새에 살짝 당황하게 된다. 하지만 곧바로 적응하게 되고 나중엔 향기롭게 느껴지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제 똥 구린지 모른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 것 같지 않은가. 제 허물 큰 줄 모르고 남의 작은 허물을 들어 나무라는 행동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는 속담이다.

다시 감옥에 들어간 어느 목사가 현 정부의 '실정'(失政)을 소리 높여 비판하는 것을 볼 때마다 그런 속담이 떠올랐다. 물론 비유가 딱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제 똥 구린지 모르는' 어리석은 행동인 것만은 틀림없을 터이니 말이다. 여하튼 오로지 이 목사 한 사람 때문에 개신교 전체가 욕을 먹고 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리고, 온 개울을 흐리는 격이다. 일어탁수(一魚濁水)요 일어혼전천(一魚混全川)이다.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다 시키고 있는' 셈인데, 이는 고금동서가 다 마찬가지인 듯하다. 중국에는 '쥐똥 하나가 죽솥 전체를 망쳤다'(一粒老鼠屎 壞了一鍋粥)라는 속담이 있고 영어권에서도 '썩은 사과 하나가 한 통의 사과를 망친다'(A rotten apple spoils the barrel)라는 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넋 빠진 목사들도 있는데 '목사'(牧師)란 말에는 왜 스승 '사'(師) 자가 붙었는지 모르겠다. 물론 둘러보면 문익환 목사나 우리 지역 출신인 손양원·최흥종 목사 등 훌륭한 분들이 많긴 하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목사 같지 않은 목사'들에게까지 스승 '사'를 붙이는 것은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처럼 어울리지 않는다.

목사의 '목'(牧)은 '가축을 기르다' '다스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다산(茶山) 정약용이 쓴 '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의 '목'도 같은 뜻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사라는 말은 아마 이 목자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실제로 '신약성서'의 '에페소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4장 11절에 이 말이 나온다는데, 그리스어로 양치기를 뜻한다고 한다. 목사와 신자와의 관계를 양치기(목자)와 양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한데 언제부터인가 이 목자(牧者)에서 놈 '자'(者)는 떨어져 나가고 스승 '사'(師) 자가 붙었다. 거 참, 우리 기자(記者)들도 언젠가는 '기사'(記師)로 불릴 날이 있으려나. 목욕탕 때밀이분들도 세신사(洗身師)로 승격한 지 오래인데.

'개천절 집회' 제 정신인가

이야기가 잠시 옆길로 샜지만, 그 목사라는 사람은 왜 많은 국민이 하지 말라는 짓거리만 계속해서 하는 것일까. 일부에서는 개신교에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천주교의 교황이나 불교의 종정처럼 권위를 가진 지도부가 없기 때문에 일부 목사들이 천방지축 날뛰어도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것도 맞는 얘기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종교와 정치의 밀착이 더 큰 문제라고 본다. 종교계도, 경제계도, 언론계도, 정권과는 일정 부분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타락한다. 얼핏 보면 문제의 그 전 아무개 목사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거리 두기'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과거 밀월을 즐겼던 보수 정권이 막을 내린 이후 갈 곳을 잃고 막무가내로 현 정권에 대해 독설을 퍼붓고 있는 건 아닐까.

일부 목사들이 엉뚱하거나 강렬한 언행으로 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이유는 또 있다. 교회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교회 재정 사정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교회 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신자를 확보해야만 한다. 이들이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열린 집회에서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신성모독 혹은 이단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이 같은 극단적인 말을 그는 과연 실제로 했을까? 혹시 언론이 어느 한 부분만 뚝 잘라내 보도한 건 아닐까.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기 위해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기로 했다. 그래서 '유튜브'를 돌려봤더니 정말 가관이다.

"앞으로 10년 동안의 대한민국은 전광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나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기 때문에. …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 친해." 중간중간, 신도들의 아멘~ 아멘~ 하는 소리가 추임새처럼 터져 나온다.

그의 말 중에 나오는 '기름 부음'(塗油, anointment)이란 말은 일반인들에게는 아무래도 생소할 것 같다. 이는 글자 그대로 '사람의 머리 또는 몸에 기름을 바르거나 붓는 일'을 일컫는 말이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권위를 부여받는 행위를 뜻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의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개념도 여기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워

어찌 됐든 전 목사는 자기가 하나님과 동격이라고 주장한 것인데, 이런 황당한 말까지도 신도들은 철석같이 믿고 따른다. 그러고 보니 교회와 병원은 한 곳만 너무 오래 다녀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문제는 이런 목사가 감옥에 갇혀서도 계속 헛소리를 해 댄다는 점이다. 오는 개천절에도 또다시 집회를 열겠다는 것 아닌가.

이들의 철딱서니 없는 행동을 말려줄 이 누구 없을까. 아, 있다. 보수 야당이다. "부디 여러분이 집회를 미루고 국민과 함께하길 두 손 모아 부탁합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엊그제 한 말이다. 좋은 말이다. 한데 그는 이런 말도 했다. 극우 세력의 집회를 보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3·1만세운동에 나섰던 선조님들이 생각나 가슴이 뭉클했다고.

방역 당국의 지침을 무시하는 '태극기부대' 등 극우 단체의 집회를 독립운동에 비유하는 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가. 혹시 집회를 말리는 것은 시늉일 뿐이고 정작 이들 단체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 진짜 속내 아니었나?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더니 딱 그 짝이다. 이러니 보수 야당과 극우 교회 세력이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으로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것이다.

그건 그렇고, 끝으로 '그저 웃고만 넘길 수 없는 유머' 하나만 듣고 글을 마무리하기로 하자. 대한민국 2대 거짓말이 있다. 첫째 '네 이웃을 사랑한다'는 목사의 말. 둘째 '오로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정치인의 말. 하긴 사기꾼들도 늘 이렇게 말한다지 않던가. "제가 사기 치겠습니까?"

광주방역당국, 개천절 서울 집회 동향 촉각

거리두기 준수·연휴는 집에서
정부 "단순 참가자도 처벌" 경고

8·15 서울 도심 집회 참가자의 연쇄 확진으로 홍역을 치른 광주방역당국이 개천절 집회 동향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711개 시민사회단체 가운데 개천절에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자유 연대,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 우리공화당 천만인 무죄 석방운동본부와의 연관성을 가진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지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에 집합금지, 사회적 거리 두기 수칙 준수와 추석 연휴 집에서 보내기 범시민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광주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에 소속된 35개사(946대)는 서울 개천절 집회에 임차와 운행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전세버스가 아니더라도 소규모 또는 개별적으로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에 대해선 막을 방법이 없어 방역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특히 8·15 광화문 집회에 참여했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상당수는 이미 격리에서 해제된 만큼 이들이 다시 상경길에 오를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정식 광주시 자치행정국장은 "직접 참가자 22명, 참가 후 확진자가 방문한 성림침례교회 66명, 기타 4명 등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 광주에서 9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불법 집회나 타지역 방문 등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다음 달 3일 서울에 신고된 집회는 총 435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집회 시 주최자뿐 아니라 단순 참가자도 처벌될 수 있다고 정부는 경고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 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천절 당일 서울 도심 신고 집회 중 규모가 10인 이상이거나 종로 등 집회 금지 지역에 신고한 집회 87건을 금지 조치했다"며 "집회를 강행하면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법행위자는 현장 검거와 채증을 통해 예외 없이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정총리 "개천절집회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일부 단체 집회 강행예고…"법·원칙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 계획에 대해 "지금이라도 철회해달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집회가 강행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 광복절 집회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의 도화선이 돼 값비싼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데도 일부 단체가 개천절 집회 강행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하루 확진자수가 100명 안팎을 기록 중인 것에 대해선 "긍정적 신호임은 분명하지만 소규모 집단감염이라는 지뢰와 조용한 전파자라는 복병이 주변에 도사려 결코 안심하기엔 이른 상황"이라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진행 양상이 100년전 스페인 독감을 연상케 한다"며 "백신과 치료제가 없던 당시 유일한 방어 수단은 마스크였는데, 지금 상황도 다르지 않다"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김영록 전남지사, 전남감염병관리지원단과 도시락 소통

"방역활동 매진 '전남 코로나 영웅'들에 감사"

김영록 전남지사는 16일 코로나19 대응 최일선 현장에서 역학조사 지원 등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일해 온 감염병관리지원단과 소통간담회를 갖고 이들을 격려했다. 〈사진〉

특히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단원들의 피로가 누적된·데다 현장 업무가 바빠 점심시간을 이용해 도청 정약용실에서 도시락을 함께 하며 애로사항을 듣고 격려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김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7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쉬지도 못하고 방역활동에 매진해준 '전남의 코로나 영웅'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지난 8월 순천을 비롯한 도내 집단감염 확산 위기 때 발 빠르게 대처해줘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므로 좀 더 힘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 강 (6개월 과정)
• 일 시 : 2020. 9. 15(화) 오후 7시
•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산수오거리 → 무등산 방향 입구 우측 2층)
• 수강료 : 풍수+사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 2020. 9. 8(화) 오후 7시.
•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 누구나 (선착순 ○○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땅 매매
화순 도곡 신덕리 계획관리지역 임야 20530㎡
야산·축사허가 및 지붕 위 태양광 설치 가능
선로확보가 14억원(조정가)
남구 대촌 지석동 자연녹지 답1003.5㎡ (대촌산업단지4차선 도로접, 아파트 2천세대 예정) 29억원
남구 대촌 양과동 답1857㎡ 2억8천5백만원
남구 대촌 양촌동 답3875㎡ 3억5천5백만원
광산 수완동 상업용 4층 건물 대지 480㎡, 연 998㎡, 엘리베이터 아파트 밀집지역 보 2억9천만원, 월 1640만원, 융 12억원 매 42억원
나주 남평 교촌리 생산녹지2585㎡ 3억5천5백만원
대한공인중개사무소(전재곤) 010-6683-3274
광주광역시 남구 대촌 포충로 606-2

분할합병공고
(채권자이의 및 주권제출공고)

세온전기 주식회사 〈이하"갑"이라함〉 와 영재전기 주식회사 〈이하"을"이라함〉은 각2020년09월17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갑"의 그 재산의(영업) 일부(전기공사업 부문)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이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기로하였으며, "갑"의 분할된 전기공사업의 재산부채등 "갑"의 전기공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을"이 승계하며, 상법제530조의9 제3항의 의거 분할된재산만을 출자금으로 인정하고 "을"은 출자받은 출자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는바이 분할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고 주주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가 없으면 분할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을 공고 및 최고합니다.

2020년 9월 17일

---아 래---

1. 분할 합병 대상 : 전기공사업(전남-01620호)
2. (갑) 상 호 : **세온전기 주식회사**
   대표이사 : 김종진
   주 소 :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담장로 407
3. (을) 상 호 : **영재전기 주식회사**
   대표이사 : 기호성
   주 소 :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추성1로 201

합병공고

2020년 9월 7일 주식회사 반도수중펌프(갑)는 주식회사 반도수중무역(을)을 합병하여 그 권리 의무를 승계하고 (을)회사는 해산하기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양사의 주주 전원으로부터 합병동의를 받았습니다. 위 계약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20년 9월 17일

(갑) 법 인 명 : **주식회사 반도수중펌프**
대표이사 : 소영호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2로 53
13동 118호(매월동, 산업용재유통센타)

(을) 법 인 명 : **주식회사 반도수중무역**
대표이사 : 소영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9번로 144
(안청동)

산행안내

9월19일(토)

▲**광주금당산악회** 9월19일(토) 충북 포암산 · 만수봉 · 용암산, 봉선동 롯데마트 앞 06:10, 진월동식자재마트앞 06:20, 염주체육관 06:30, 한국병원 앞 06:40, 문예회관정문 06:50, 비엔날레주차장입구 07:00 ※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010 3620 2284

▲**광주호산회** 9월19일(토) 전북 순창, 남원. 송대봉. 채계산 출렁다리,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출발 06:30, 롯데백화점 07:00, 예술회관 후문 07:15 ※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9월25일(금)

▲**광주호산회** 9월25일(금) 무박2일 설악산 대청봉 천불동계곡 B코스 울산바위 권금성케이블카,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출발 22:00, 롯데백화점 22:30, 예술회관 후문 22:45 ※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光州日報 · 예향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